

방어율 1.45... '어메이징' 류현진

애리조나전 7이닝 무실점 시즌 12승
프로데뷔 13년만에 한·미 통산 150승
NL 사이영상 선두주자 입지 굳혀

한국프로야구에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로 직행한 첫 선수인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프로 데뷔 13년 만에 한미 통산 150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류현진은 1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무실점 패투를 선사했다. 안타는 5개로 묶였고, 삼진 4개를 잡았다. 팀의 9-3 승리로 류현진은 시즌 12승(2패)과 한미 통산 150승을 동시에 수확했다.

2006년 KBO리그 한화 이글스에 데뷔한 류현진은 역대 최초로 신인상과 최우수선수(MVP)를 석권하며 '괴물'의 화려한 등장을 알렸다.

2012년까지 한화에서 통산 98승(52패)을 거뒀고 2013년 빅리그에 진출해 이날까지 통산 52승(30패)을 보태 대망의 150승 고지를 밟았다.

류현진은 또 시즌 평균자책점을 1.53에서 1.45로 더 낮춰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의 선두 주자로 입지를 굳혔다.

8-0으로 크게 앞선 8회, 구원 투수에게 배턴을 넘긴 류현진은 지난달 20일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 이래 23일 만에 승수를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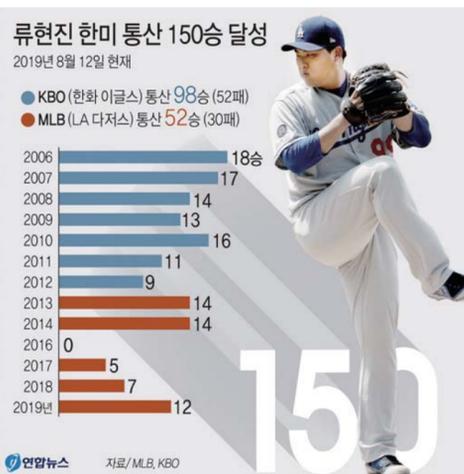
올 시즌 홈에서 9승 무패를 올린 류현진은 또 안방 평균자책점도 0.89에서 0.81로 떨어뜨려 안방 무적으로 승승장구했다.

또 '방울뱀 사냥꾼'으로 주가를 높였다. 류현진은 올 시즌 애리조나를 상대로 3승 무패, 평균자책점 0.45라는 놀라운 성적을 냈다.

류현진은 이날 삼진(4개)과 보내기 번트, 병살타를 제외한 아웃카운트 15개 중 12개를 땅볼로 잡아냈다. 전매특허인 체인지업의 위력이 강력했다.

1회 선두 타자 팀 로캐스트로에게 몸쪽에 빠른 볼을 붙였다가 의도와 달리 몸에 맞는 공으로 1루에 내보낸 류현진은 4회 2사 후 크리스천 위커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 때까지 11타자를 연속 범타로 요리하고 승리의 발판을 다졌다.

류현진은 우타자 바깥쪽에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주로 던져 땅볼 5개를 잡았고, 낙차 큰 커브를 활용해 탈삼진 3개를 곁들여



3.2이닝을 무피안타로 버텼다.

5회 선두 타자 애덤 존슨에게 중전 안타를 맞은 류현진은 후속 타자의 내야 땅볼 때 존슨을 2루에서 잡았지만, 카스 켈리에게 볼넷을 내줘 1사 1, 2루에 몰렸다.

투수 마이키 리크의 보내기 번트로 2, 3루 실점 위기에 직면한 류현진은 로캐스트로를 유격수 땅볼로 돌려세워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류현진은 7회 땅볼 2개와 삼진 1개로 아웃카운트 3개를 채우고 임무를 완수했다.

류현진은 4회 중전 안타를 쳐 시즌 4번째 안타를 기록하는 등 2타수 1안타로 타격을 마쳤다. /연합뉴스



던질 때마다 바뀌는 MLB 100년史

류현진, 다저스 좌완 단일시즌 최저 방어율
1916년 마퀴드 넘어선 103년만의 기록

'괴물'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100년의 기록이 바뀐다.

'역대급'이라고 평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난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이 기록의 주된 분석 대상이다.

류현진은 12일(한국시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7이닝 동안 무실점 호투로 시즌 12승과 한미통산 150승을 동시에 수확했다.

평균자책점은 1.53에서 1.45로 더욱 낮아졌다. 류현진은 올 시즌 규정 이닝을 채운 빅리그 투수 가운데 유일하게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 중이다.

류현진은 다저스 왼손 투수로는 단일 시즌 가장 낮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다저스 구단이 12일 경기 전 취재진에 배포한 게임 노트를 보면, 류현진은 최소한 시즌 20차례 이상 선발 등판한 다저스 역대 왼손 투수 중 가장 뛰어난 평균자책점(전날 현재 1.53)을 찍었다. 1.45로 더욱 낮았으니 기록은 현재 진행형이다.

평균자책점이 내셔널리그 공식 기록이 된 1912년 이후 기록으로 따지면 류현진은 루브 마퀴드(1916년·1.58)를 넘어 103년 만에 다저스 왼손 투수로는 가장 낮

은 평균자책점을 수확했다.

클레이턴 커쇼(2016년·1.69), 샌디 쿠팍스(1966년·1.73·1964년·1.74)가 뒤를 이었다. 쿠팍스와 커쇼는 다저

스를 상징하는 간판이자 당대 최고의 왼손 투수다. 2019년 류현진의 몬스터 태풍에 두 거목의 기록은 한 계단씩 뒤로 밀렸다.

커쇼의 2016년 평균자책점이 21차례 선발 등판의 결과라면 쿠팍스의 1966년 평균자책점은 41번의 선발 등판과 27번의 완투 전리품이어서 더욱더 놀랍다.

다저스가 올 시즌 42경기를 남긴 터라 류현진은 산술적으로 8번 정도 더 등판할 수 있다.

류현진이 평균자책점을 얼마나 더 낮출지 한국과 미국의 언론은 그의 손끝을 주시한다.

류현진의 현재 평균자책점은 2015년 잭 그레이키(현 휴스턴 에스트로스)의 1.66 이후 4년 만에 빅리그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다. 평균자책점 리그 1위가 1.4대를 찍은 건 내셔널리그에선 프레드 앤더슨(1917년·1.44), 아메리칸리그에선 윌터



존슨(1919년·1.49)이 마지막이었다.

MLB닷컴도 류현진의 경기 전 평균자책점과 조정 평균자책점을 조망하는 기사를 실었다.

조정 평균자책점은 타자에게 유리한지, 투수에게 친화적인지 등 구장 변수를 따진 통계 지표로 100이 기준점이다.

100을 넘으면 평균 이상의 투수로 2000년 '외계인'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무려 291을 찍기도 했다.

류현진은 11일까지 평균자책점 1.53, 조정 평균자책점 272를 기록했다.

류현진보다 평균자책점은 낮고 조정 평균자책점이 높았던 투수는 1914년 보스턴 레드삭스의 더치 레너드(평균자책점 0.96·조정 평균자책점 279)뿐이라고 MLB닷컴은 소개했다. 이 기록 역시 류현진이 레너드에 이어 105년 만에 진기록을 쓴 셈이다. /연합뉴스

'5년 우승 주기' 허미정, 스코틀랜드오픈서 통산 3승

20언더파 264타... '핫식스' 이정은 공동 2위

허미정(30)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스코틀랜드오픈(총상금 150만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허미정은 11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 베리크의 르네상스 클럽(파71·629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신인이던 2009년 세이프웨이 클래식에서

서 첫 우승을 따낸 허미정은 2014년 요코하마 타이어 클래식에서도 우승했고, 이날 최종 합계 20언더파 264타의 성적으로 개인 통산 3승을 달성했다. 최근 5년마다 1승씩 쌓은 허미정은 우승 상금 22만5000달러(약 2억7000만원)를 받았다.

'핫식스' 이정은(23)이 16언더파 268타를 기록, 모리아 쥘타누간(태국)과 함께 선

두에 4타 뒤진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올해 한국 선수들은 LPGA 투어 23개 대회에서 11승을 합작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4라운드 경기는 중반까지 허미정, 이정은, 쥘타누간, 이미향(26) 등 네 명이 한때 공동 선두를 이루는 혼전 양상이 이어졌다.

3라운드까지 선두 쥘타누간에게 1타 뒤진 2위였던 허미정은 9번부터 12번 홀까지 4연속 버디를 몰아치며 치열한 선두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이 고비에서 이미향은 10번 홀 보기, 이정은은 11번 홀 보기로 주춤하면서 선두 경쟁에서 밀려났고, 쥘타누간이 1타 차로 허미정을 추격했다.

1타 차 리드로 앞서가던 허미정은 14, 15번 홀에서 연달아 버디 퍼트가 아깝게 홀을 스치고 지나가며 타수를 벌리지 못했다.

그러나 쥘타누간이 15번 홀(파3)에서 비교적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면서 2타 차가 됐고, 허미정이 16번 홀(파5) 약 2m 거리 버디로 3타 차로 달아나며 승부가 어느 정

도 정해졌다.

비교적 여유 있는 리드를 안고 마지막 18번 홀(파4)에 들어서 허미정은 두 번째 샷을 홀 1.5m 정도 거리로 보내며 승리를 자축하는 버디로 우승 기분을 냈다.

2017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했던 허미정은 지난해 결혼 이후 처음 우승을 달성한 뒤 그린 위에서 남편의 축하를 받았다.

2017년 이 대회 우승자 이미향은 15언더파 269타로 단독 4위에 올랐다.

에비앙 챔피언십과 브리티시오픈에 이어 유럽여자프로골프 투어(LET)와 공동 주관한 유럽 3연전을 마친 LPGA 투어는 22일 개막하는 캐나다 오픈으로 이어진다. /연합뉴스

